

## 인재가 떠난다

“광주는 혁신인력의 수요와 공급체계가 전국 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수급 의존형’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 (중략) 전남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나, 지역 내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외부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인력 부족형’에 가깝다.”

인공지능, 자율형자동차 산업 등 4차산업 대표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는 인재들이 일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의 경우 좋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을 기피하면서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성범 과장과 남기찬·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광주전남 지역혁신체계의 기술·인력 자립기반 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연구기술·개발직렬 대학 전공자의 지역 내 취업률은 41.6%에 그쳤다. 전국 특·광역시 평균인 43.8%를 밑도는 수치다. 광주지역을 떠난 혁신 인재들은 전남(28.7%)과 경기(8.3%), 전북(5.3%) 등으로 취업했다.

연구진은 노동 수요 자금 비율(LDSC)과 노동 공급 자금 비율(LSSC)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광주주는 ‘수급 의존형’에 해당했다. 이는 지역 대학에서 졸업한 노동력이 지역 내에 머무르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떠난데다, 지역 내 취업자 중에서도 이 지역 대학 졸업자 수가 적어 혁신 인력의 배출

### 광주는 일자리 없고 전남은 인프라 부족

‘지역혁신체계의 기술·인력 자립 기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연구 보고서

연구·개발 전공자 지역내 취업률  
광주, 41.6%에 그쳐  
전남, 연구 기술직 ‘미스 매치’  
구인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심각

과 활용도가 좋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성범 과장은 “광주에는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역량 있는 대학이 있지만, 배출되는 기술인력의 상당수가 외지에서 첫 일자리를 찾게 된다”며 “이에 따라 지역 기업들은 숙련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타 지역 인력시장에 의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기업들이 연구인력을 채용, 육성할 수 있는 기업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도 조

언했다.  
전남의 경우 현재 지역에서 취업해 근무 중인 연구기술·개발직 가운데 지역 대학졸업자는 51.6%로, 전국 평균인 52.0%보다 낮았다.

연구진이 일자리 수급의 상대적인 비중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인 수치에서 구직 수치를 뺀 ‘미스 매치 지수’를 조사해 본 결과, 전남은 연구기술직에서 -3.3을 기록했다. 마이너스가 클수록 구인난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구인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여천산단과 영암대불산단 등 대기업·중견 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수요는 있지만,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젊은 층의 연구자들에게 산단 내 주거·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근무 이외 생활 환경이 매력적이지 못해서 떠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도시 융복합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연구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 과장은 “광주·전남은 일자리 규모에 비해서 숙련 인재가 부족한 노동시장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반복적인 양산기능에만 활동이 집중돼 있는 지역기업들의 기술혁신 행태에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에서 추진 중인 혁신산업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기업의 혁신생태계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2면

타이어 펑크·건물 균열·지하철공사 민원 폭주 ▶6면



산체스 “난 싸움닭 아닌 교묘한 승부사”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한국, 지난해 경제규모 ‘톱10’ 유지 실패

명목 GDP 1조6733억달러...러시아·브라질·호주에 추월 ‘13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돼 3년 연속 ‘톱(Top) 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733억달러로, 전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조4627억달러로 1위를, 중국이 17조8760억달러로 ‘빅2’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이 4조2256억달러, 독일이 4조752억달러, 영국이 3조798억달러로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인도(3조96억달러), 프랑스(2조7791억달러), 캐나다(2조1436억달러), 러시아(2조503억달러), 이탈리아(2조105억달러)가 전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다.

브라질이 1조8747억달러로 11위, 호주가 1조

723억달러로 12위였고, 우리나라에 이어 스페인이 1조5207억달러, 멕시코가 1조4597억달러로 각각 14위와 15위를 차지했다.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명목 GDP는 시장가격(당해연도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는 2021년 10위에서 지난해 13위로 3계단 하락했다.

유엔(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8109억달러로 11위였던 러시아(1조7787억달러)와 12위 호주(1조7345억달러), 13위 브라질(1조6089억달러)을 앞섰지만, 이들 모두 지난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연합뉴스

## “오염수 방류 건강과 안전 최우선”

리투아니아서 한·일정상회담  
북 미사일 규탄 안보협력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대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를 이어간 모양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정부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도발에 대해서도 함께 규탄하고,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틀을 제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군사 정보 공유 구상을 꺼냈다.

유럽과 한국의 안보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군사 기밀을 상시 공유하는 체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의 연설에서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나토의 기존 ‘정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참여해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군사 기밀을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Sulwhasoo

## 설화수 자음생크림

###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